

진도군, 뽕할머니 공중화장실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제20회 아름다운 화장실대상 공모전’ 동상...신비의 바닷길 인근 위치 LED 조명·안심 비상벨·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다양한 휴게시설 설치

진도군이 ‘제20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大賞)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조선일보와 화장실 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전

국의 공중화장실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심사,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진도군 뽕할머니 공중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조성된 뽕할머니 공중 화장실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인근에 위치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

고 있다. 화장실 내부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 조명 설치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비상벨과 CCTV, 장애인을 위한 전용 화장실 설치, 유아 동반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 유아 거처대도 설치했다. 특히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

차단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시 점검도 해 안전한 치안 체계 구축과 여성 범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등 사람 중심 화장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선진 화장실 문화와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영암순천고속도로 ‘장흥정남진휴게소’ 본격 운영 시작

양방향 통합형 건립돼 접근성 높이고 운영 부담 낮춰



영암순천고속도로 ‘장흥정남진휴게소’가 2일 오전 8시 운영을 시작했다. 장흥정남진휴게소는 영암과 순천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합형으로 설계됐다. 양방향 통합형으로 건립됨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휴게소 운영에 따른 부담은 크게 낮췄다. 영암군과 보성군에 간이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휴게소 간 거리가 50km 이상 떨어져 있어 그동안 영암순천고속도로를 이용한 고객들의 불편이 높았다. 2일 장흥정남진휴게소가 문을 열

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다.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일원에 들어선 장흥정남진휴게소는 휴게소, 주유소, 충전소,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휴게소 곳곳에는 식물을 이용한 그린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한편, 냉·난방시스템과 조명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치했다. 장거리운전자들의 피로회복과 안전운전을 위해 향후 화물차 라운지도 개장할 예정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정남진휴게소 운영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전하는 휴게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11월 해양치유식품 ‘영양의 보고’ 굴

11월~2월 제철 알맹이 크고 탱글탱글...맛과 영양 모두 뛰어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다 내음이 가득 풍고 있는 수산물이 떠오른다. 바로 굴(석화)이다. 완도군은 11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굴을 선정했다. 완도군에서는 신지면 석화포 앞바다와 고금면, 약산면에서 굴 양식을 하며 연간 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 완도 연안은 맥반석으로 형성된 청정 해역으로 수산물의 맛과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굴은 알맹이가 크고 탱글탱글하다. 굴은 5~8월 산란 후 가을에 살이 올라 몸집이 통통하고 유백색을 띤다.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며 여름보다 겨울에 동물성 다당류이자 몸속 바로 굴(석화)이다.

완도군은 11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굴을 선정했다. 완도군에서는 신지면 석화포 앞바다와 고금면, 약산면에서 굴 양식을 하며 연간 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 완도 연안은 맥반석으로 형성된 청정 해역으로 수산물의 맛과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굴은 알맹이가 크고 탱글탱글하다. 굴은 5~8월 산란 후 가을에 살이 올라 몸집이 통통하고 유백색을 띤다.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며 여름보다 겨울에 동물성 다당류이자 몸속 바로 굴(석화)이다. 완도군은 11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굴을 선정했다. 완도군에서는 신지면 석화포 앞바다와 고금면, 약산면에서 굴 양식을 하며 연간 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 완도 연안은 맥반석으로 형성된 청정 해역으로 수산물의 맛과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굴은 알맹이가 크고 탱글탱글하다. 굴은 5~8월 산란 후 가을에 살이 올라 몸집이 통통하고 유백색을 띤다.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며 여름보다 겨울에 동물성 다당류이자 몸속 바로 굴(석화)이다.

며,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등이 풍부해 남성에게는 체력 회복에 좋은 강장 식품, 여성에게는 피부 미용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동의보감’에는 ‘굴 껍데기는 굳은 것을 무르게 하고 수렴 작용을 하는 약제로 지나친 대소변과 식은땀을 멎게 한다. 또한 살결을 곱게 하고 얼굴 빛을 좋아지게 하는데 해산물중 가장 몸에 좋다.’고 기록 돼 있다. 또한 굴 100g에는 1130mg의 타우린이 들어 있는데 타우린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 회복에 좋다. 뿐만 아니라 굴은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과 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해남군 “보리·밀 파종 서두르지 마세요”

쌀보리·밀 15일까지...지난해보다 5일가량 늦춰 파종

해남군은 보리·밀 등 맥류의 봄철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기 파종 지도에 나섰다. 최근 겨울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보리와 밀을 일찍 파종할 경우 봄철 출수가 전후 저온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도 지난해 290ha 면적에 저온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보리·밀의 안전한 겨울나기와 봄철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쌀보리·밀은 10월 30일~11월 15일, 맥주보리는 11월 5일~11월 15일 정도 파종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일 가

량 늦춰진 시기이다. 또한 맥류 감부기병, 줄무늬 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미소독 정부보급종과 자가 채종 종자는 파종 전 반드시 종자소독을 해야 하고, 습해 예방을 위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파종시기가 늦어져 맥류 파종한계기인 11월 20일까지 파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고, 봄에 파종할 경우 파종량은 20~30% 늘려 파종해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교육 수료생 대상 면접 일자 논의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겨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9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기

업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욱 강진군수를 비롯해 강진군 및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산물류관리 분야, 사무행정 분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물류관리 분야는 품질관리, 생산관리, 핵심EPR프로세스 실무에 대해, 사무행정 분야는 회계기초, 세무회계, 사무자동화 실무에 대해 교육하며 4차산업혁명에 최적화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춰있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